

창업, 초기 지원·성장·재도전까지 돕는다

정부 종합대책 발표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운용
중소 기술 보유만 해도 자금 지원
동산·지재권도 담보 활용 가능



중소벤처부 주요사업 성과보고회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20일 청사 입주기관과 올 한해 추진한 주요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기부 광주전남청 제공>

연체가 있어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들도 재도전할 수 있는 특별 자금과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창업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창업할 수 있는 초창기 지원부터 성장단계와 회수, 사업 실패 후 재도전까지 단계별 지원책이 마련돼 창업환경이 개선되고 창업자들의 숨통도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창업지원(start-up)=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내년 창업자원을 위해 2조원 상당의 혁신창업펀드의 창업초기(입력 1~3년) 분야 비중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혁신모험펀드(10조원)의 운용 개선에 나선다.

성장지원펀드(8조원)의 원활한 결성 유도를 위해 공공출자를 40% 이상으로 설정한다. 또 모태펀드 등을 통한 엔젤투자 지원 펀드도 1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 증여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증여세를 5억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된다. 적용대상 업종도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인 여관업과 주점업,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현재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자금사용이라는 조건에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에 자금 사용으로 넓어진다.

여기에 여수해안박람회특구 창업기업들을 비롯한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 등 낙후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

면(3년간 100%+2년간 50%) 요건을 고충진화적으로 재설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한편 요건을 완화(투자금액 기준 인하)하되 고용요건을 신설하고, 감면 한도가 근로자수에 비례하도록 개편한다.

일반 연구개발(R&D) 보다 세액공제율이 우대 적용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대상에 불특체인 및 미세먼저 저감 기술 등도 추가된다. 국내 벤처펀드의 해외창업기업 투자도 확대 허용하고 외국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상대국 진출기업에 대한 상호보증까지 지원한다.

◇성장지원(scale-up)=정부는 또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액공모의 경우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창업 7년 이내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제도도 도입, 자본시장 등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에도 나선다.

현재 금융권 대출은 부동산과 매출채권, 동산 등 담보별로 실행되고 있지만, 일괄담보제

를 도입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다더라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트업이 투자자, 기업 등과 협력·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기반 창업집적공간으로 스타트업파트도 조성할 방침이다. 내년 중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1개 지역에 시범 조성된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술만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도 확대한다. 내년 1250억원에서 2020~2022년 3750억원 등 향후 4년 동안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조성해 우수기술기업과 우수IP 보유기업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 수수료도 70%에서 90%로 확대하고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도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에서 개인과 법인 각각 30억원으로 늘린다.

◇회수지원(exit strategy) 및 재도전 지원(re-bound)=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

처나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이상 중소기업 등) M&A시 법인세 감면을 2021년말까지 연장지원한다. 일몰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1년 말로 연장된다는 뜻이다.

벤처기업 매각으로 회수한 투자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요건도 2021년 말까지 적용하는 조건으로 완화한다. 재투자금액 의무비율은 양도대금의 80%에서 50%로 줄고, 재투자 기한도 신고기한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중소기업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서도 사업전환지원사업 용자 거치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시설자금의 경우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운전자금은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늘어났다. 또 신속한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기업당 70억원 이내에서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 등이 있어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재도전 특별 자금·보증을 공급해 재기 가능성도 높여준다는 구상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조계현 원장의 특 특 창업이야기



외식 창업 결산과 전망

2018년 탁상용 달력을 선물로 받아서 책상 위에 올린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송년 정점을 알리는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다. 창업칼럼을 쓰는 사람이라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지나온 한해의 창업시장의 흐름을 정리하고 새해의 창업트렌드에 대한 시각을 지면을 통해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2018년도 창업시장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빈 점포가 이렇게 많았던 해가 있었던가'라는 것이다. 길거리 빈 점포마다 붙어있는 임대문의 현수막이 말해주듯이 경기침체가 피부로 진하게 느껴진 한 해인리라 예비창업자나 자영업자들에게 2018년은 빨리 떠나보내고 싶은 해가 아닌가 싶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업종은 소비둔화로 인한 매출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데다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책의 통과로 인해 운영비용은 더욱 상승하는 딜레마에 빠진 한 해였다.

2018년도 외식창업 시장의 주요 특징을 정리해보면 편의점 먹거리 시장의 확대, 반찬, 도시락 전문점들을 포함한 HMR식품 관련 창업시장의 강세, 커피전문점들의 시장 조정, 치킨전문점들의 중화요리식 메뉴의 강세, 이베리코 돼지고기 전문점들의 선전, 샐러드, 샌드위치 시장의 확대, 국밥, 해장국 전문점들의 약진, 실내포차의 컨셉 다양화, 무제한 리필전문점들의 선전, 시외형 대형 외식업소들의 강세, 배달음식의 다양화와 배달 음식시장의 폭발성장,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소가맹점 다브랜딩화, 뉴트로 인테리어의 강세, 키오스크형 무인 주문결제 시스템의 확산, 핀테크의 발달로 인한 간편결제시스템의 대중화, 물가 인상에 따른 창업비용의 증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임대료 부담 등을 꼽을 수 있겠다.

2019년도 창업시장의 트렌드는 2018년도 흐름의 연장선에서 올해의 흐름이 2019년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중 농립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년 외식 트렌드를 이끌 키워드로 발표한 편도족(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의 확산, 비대면 서비스와, 뉴트로 감성은 필자도 가까이 공감한다. 다만, 광역의 의미로 보면 더 큰 화두는 생존형 창업과 특화형 창업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점포위치, 메뉴, 운영방식, 서비스, 홍보 등 전 분야에 걸쳐서 경쟁에서 살아남을 있는 최소한의 생존 경쟁력은 확보한 상태에서 창업을 해야 하고 아주 일반적인 업종의 창업일지라도 기존 동일 또는 유사 경쟁업소들과 차별화 요소를 얼마만큼 적용하여 특화시켰는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또 패기만만한 젊은 예비창업자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보다는 향후 프랜차이즈 본사로 도약할 수 있는 개성 있는 독립점 창업을 선호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중장년층 창업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하는 세대별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임지가 제법 관망은 많은 빈 점포들이 매물로 나온 상황인지라 2019년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기존 자영업자나 신규 예비창업자 시각에서 보면 2019년도 경기침체를 벗어날 만한 호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한해가 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세밀하고 준비하고 탄탄한 노하우와 경쟁력을 확보한 이후에 창업에 나서는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이런 시장상황이 오히려 자신의 숨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청년 셰프 3인의 계백집 '청년키움식당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일 청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청년키움식당'의 올해 우수 운영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계백집' 팀이다. 실제 창업을 앞둔 청년셰프 3명으로 구성된 '계백집'은 닭안자를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을 목표로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 다양한 메뉴 개발 등 도전 정신을 높게 평가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전북대학교 재학·졸업생 5명

으로 구성된 '일면식' 팀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호원대학교 외식조리과 학생 8명으로 구성된 '달당' 팀이 선정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지난 10월 24일 열린 2018 대한민국 식품대전에서 청년키움식당 부스를 방문해 창업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커피를 마시면 사랑이 시작된다!

채널A 주말특별기획

커피야, 부탁해

유준형 김민영 채서진 이태리 길은혜 김남매 류해린 맹세창 한재우 이태운 이갑선 장경수 김동준 우정환 윤소이 김걸 | 극본 서보라 이아연 연출 박수철

매주 토·일 저녁 7시 40분